

'표준약정서' 활성화 ... 납품단가 갈등 푼다

연동제 법제화 대신 추가 비용 상향조정 권장 제도

각종 규제행정 중소기업엔 불리하게 적용되는 일 없게

중기청 '중소 희망전략'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요구했던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 대신 표준 약정서 활성화 방안이 도입된다.

또한 각종 규제행정이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용되는 '중소기업 규제유연화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15일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희망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청장은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 갈등의 해결방안에 대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이를 도입한 나라가 없어 우리가 단박에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시장경제질서란 큰 틀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그 전 단계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표준약정서를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준약정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와 비슷한 일종의 '권장사항'으로, 납품업체가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때 납품을 맡긴 위탁기업이 계약금액을 조정해 지급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중기청은 표준약정서를 도입한 기업에 2년간 수급기업실태조사를 면제해주고 상생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홍 청장은 또한 "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처럼 각종 규제행정이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영향을 평가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규제유연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중기청 내부적으로 170개

정책 중 정책 35개를 없애기로 하고 폐지되는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 100억원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 계획"이라며 "정책검증을 체계화하기 위해 신설사업은 3~5년 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다음달 17일 처음으로 한·일 중소기업청장이 만나는 '중소기업 정책대화'를 개최해 국장급의 협업체널 정례화와 부품소재 분야 중소기업 협력방안 등 양국 중소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른바 '명품 중소기업'을 100여개 선정해 집중 지원 하는 한국형 모노즈쿠리(좋은 물건 만들기)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남 브랜드 쌀 맛이 일품이죠”
전남도와 농협전남지역본부가 주최한 '녹색의 땅 전남농축산물 페스티벌'에서 박준영 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15일 전남쌀 홍보관을 찾아 전국 우수브랜드쌀과 전남도가 선정한 10대 브랜드쌀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공 농협공판지원부장, 이낙연 국회의원, 박준영 전남도지사,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이덕수 농협전남지역본부장. 15일 서울 양재동 (주)농협유통양재점 하나로 공원에서 개막돼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남 22개 시·군과 농협·소비자단체 등이 참여, 전남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과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전남농협 제공)

작년 손보사 사상 최대 흑자 車 보험료 인하 요구 '빚발'

보소연 "1조6천억 흑자"

보험소비자연맹은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사상 최대인 1조6천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15일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보소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손보사들은 2001 회계연도부터 지속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흑자영업을 하고 있다"며

"손해율(보험료 수입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상승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그간의 주장은 모두 엇박이였다"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자동차보험료는 준조세 성격이 있는데도 최근 몇년간 너무 자주, 많이 인상됐다"며 "이제는 이를 인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험 청약, 질병 사실 반드시 기재 구두로 알릴땐 계약 해지·보험금 못받을 수도

금감원 유의사항 소개

금융감독원은 15일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못받거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일이 없도록 청약과 보험약관에 규정된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를 소개했다.

보험 가입자는 청약서를 작성할 때 현재와 과거의 질병, 직업 등 보험사의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못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는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영업을 할 뿐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는 반드시 청약서에 고지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화를 통해 보험에 들 경우 보험사는

별도의 서면 질의서 없이 전화내용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청약절차를 밟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 그러나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청약서를 보여주지 않거나 임의로 기재했을 경우, 가입자가 정정하지는 않지만 질병이나 치료사실을 알렸는데도 보험사가 추가로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 보험사가 가입자의 고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장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넘었을 때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연합뉴스

大檢, 석유공사도 압수수색 임직원 횡령혐의 첩보 입수 내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5일 오전 8시경부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외유전 개발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 등 석유공사 임직원들의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해오던 중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철 수사관 등 10여명은 본사 해외석유개발사업 담당부서와 재무처내 수입 부과금 담당부서 등에서 각종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감사원은 옛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석유수입 부과금 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과금의 징수, 환급이 엉망으로 처리돼 1천382억원의 국고손

한국 국가경쟁력 31위 작년보다 2계단 하락

亞·太 10개국 비교땐 8위 그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했다.

IMD가 15일 공개한 '세계 경쟁력연감 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55개 국가 및 지역경제 가운데 종합 국가경쟁력에서 31위로 지난해의 29위에서 2계단 하락했다.

한국의 종합 국가 경쟁력 순위는 ▲2003년 32위 ▲2004년 31위 ▲2005년 27위 ▲2006년 32위 ▲2007년 29위 등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올해에 다시 31위로 떨어졌다. 올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수는 1위인 미국을 100으로 잡았을 때 61.564에서 58.884로 떨어졌다. 또 인구 2천만명 이상의 경제를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는 작년의 12위에서 13위로 떨어졌고, 1인당 GDP(국내총생산) 1만 달러 이상의 경제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25위에서 26위로 하락했다.

4대 부문별로는 정부효율성 부문(31~37위)과 인프라 구축 부문(19~21)에서 하락했고 경제성과 부문(49~47위)과 기업효율성(38~36위) 부문은 개선됐다.

경제성과 부문은 수출 호조에 따른 국제무역 부문의 순위가 45위에서 40위로 높아진 영향으로 상승했으며 기업효율성 부문 개선은 기업인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호의적 반응에 토대로 경영활동 부문 순위가 41위에서 35위로 올랐기 때문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과 싱가포르·홍콩이 1~3위를 지켰고, 4~10위에는 스위스·룩셈부르크·덴마크·호주·캐나다·스웨덴·네덜란드 포함됐다. 이중 호주와 대만이 각각 5계단씩을 뛰어 올라 7위와 13위를 각각 차지했다. 10위권 바깥에서는 말레이시아가 4계단 오른 19위를, 슬로베니아가 8계단 뛰어 오른 32위를 각각 기록했다. 브릭스(BRICs)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2계단씩 떨어진 17위와 29위, 러시아가 4계단 떨어진 47위



물가불안 확산 소비심리 '꽂꽂'

삼성경제연구, 소비자태도지수 '비관적'

물가상승으로 비관적 소비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삼성경제연구소의 '2008년 2·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47.8로 전년 동기보다 3.3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2·4분기 이후 1년만에 기준치를 하회했다.

소비자태도지수가 기준치인 50보다 낮을 경우 소비자들의 현재 경기판단과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비관적 소비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로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물가불안이 으뜸으로 꼽혔으며 최근 미국경기 부진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증시 부진과 고용시장 악화

도 주요원인으로 거론됐다.

2·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모든 소득계층과 전 연령대에서 전 분기보다 하락했으며 모두 기준치를 하회했다.

이번 소비자태도지수의 하락은 경기가 1년후에 호전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미래경기예상지수가 전 분기에 비해 9.5포인트 급락했고, 1년후 생활환경을 내다본 미래생활환경지수도 3.7포인트나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미래경기와 관련된 지수가 추도했다.

현재와 비교해 1년후 경기전망에 관한 질문에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62.5%는 그 이유로 물가상승을 꼽았고, 현재와 비교한 1년후의 생활환경에 관한 질문에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51.3%도 물가상승을 지목했다. /연합뉴스

수입 원자재가 종합 산정 '코이마지수' 최고치 경신

한국수입업협회(KOIMA)가 주요 수입원자재 가격을 종합해 산정하는 '코이마지수'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15일 한국수입업협회에 따르면 4월 코이마지수는 393.13포인트로 지난 3월의 347.83포인트 무려 45.3포인트나 상승하며 작년 9월 이후 8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이마 지수는 1995년 12월의 원자재 수입가격을 기준치 100으로 놓고 매월 30개 주요 수입원자재 가격을 산출한 것이다. /연합뉴스



서광주세무서-영광군 '폐업신고 간소화' 협약

서광주세무서(서장 박순서·왼쪽)는 9일 영광군청에서 인·허가대상 업종 영위자의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 영광군(군수직무대행 신창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그동안 인·허가, 등록, 신고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들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영광군 소재 민원인들은 영광군청과 서광주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민원처리를 해왔으나,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식품위생관련업 등 인·허가, 등록대상 사업자 1천836명의 민원인들이 관공서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또 인·허가사항만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과다 납부하는 사례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유니스전자	정규직 생산간부/생산설비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6	062-955-1532
㈜락마트	[시안캘러리]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6	062-650-2203
㈜태홍이메스	[정규직] A/S기술직 신입, 경력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7	062-522-9181
현-데코	도면제작 사원모집(캐드, 맥스 가능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5/18	062-576-1751
창영택전문점	제품디자인/시각디자인/웹디자인 각분야별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8	062-520-6031
월드뷰캐	연회물관리, 행사진행, 예약관리 사원채용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21	062-251-7800
㈜엘이즈	물류센터 사무직 채용합니다.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1	062-717-5036
에니프로토	정규직 사원모집(CAD,CAM가능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2	062-952-6082
ING생명(본세)	[본사직영남/여 고객상담원-월300만이상	고졸/경력무관	3400~3600	05/22	02-3452-2612
남영건설	남영건설(주) 분야별 신입/경력 채용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5/22	062-360-0781
동림전자	경력 및 총무 신입 및 경력직 채용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23	062-952-7272
㈜H&T	[고정급151만원/주5일] SKT 114/CRM(동시모집)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5/23	062-350-6333
하남성심병원	하남성심병원 간호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0	062-958-1284
㈜한진전자머링	용접/제판 업무담당자/하일 분을 모집합니다.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5/30	062-602-7477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